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교육불평등 실태와 정책적·행정적 대처방안

김 순 양*

요 약 문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의 취약계층학생의 교육불평등 실태를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불평등의 개념, 원인, 측정지표 등을 논의하고 연구를 위한 논의틀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 하의 취약계층학생의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실태를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한 전국적 조사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 및 지역사회의 폐쇄는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 전반에서 취약계층학생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의 실태와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취약계층학생들의 교육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행정적 대처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교육불평등, 코로나19 팬데믹,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

I. 서 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대미문의 전(全)지구적 재난이다. 2022년 4월부터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떠한 형태로 반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대형재난은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의 정도가 같지는 않다.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kimsy@ynu.ac.kr

사람마다 환경적 여건, 재난대처 방식, 기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박미희, 2020).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대한 안전망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은 국가정책의 적실성 여부에 따라서 상당 부분 완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형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거의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학생들의 학습손실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돌봄환경의 부실, 부모의 교육지원 역량 부족, 사교육능력 부족, 부실한 학습환경 등 제반 측면에서 불리하다. 특히, 저소득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위기의 교육취약계층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불평등 결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불평등은 건강불평등, 고용불평등 등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다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불평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행정적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의 취약계층학생의 교육불평등 실태를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에 입각하여 취약계층학생의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불평등의 개념, 원인, 측정지표 등과 관련한 제반 이론들을 논의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논의의 틀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 하의 취약계층학생의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 전반의 교육불평등 실태를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한 전국적 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¹⁾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취약계층학생의 교육불평등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대처방안을 제언하였다.

1) 교육부, 통계청 등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하의 초중고생들의 교육 실태에 대해 여러 차례 전국 단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표본수를 만 명 이상으로 한 것들로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연구자의 대규모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들 전국단위 조사들을 변수에 맞추어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틀

1. 교육불평등 관련 이론적 논의

1) 교육불평등의 개념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은 “교육기회, 교육조건, 교육자원 배분이 교육대상자에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교육결과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나는 상태”이다(김인희, 2010: 136). 교육불평등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며, 이로 인해 열등한 교육성도가 나타남으로써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상이다. 즉, 교육불평등은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포괄한다(윤수인·이홍직, 2019). 이러한 교육불평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하게 혹은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인 교육격차, 교육소외, 학력격차, 교육양극화 등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불평등은 이념적·상징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는 가치함축적 개념으로 권력과 자원의 불공정한 배분으로 인해 교육기회와 교육결과가 특정집단에게 불리하고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교육격차는 현상적, 중립적, 탈(脫)이념적 성향의 용어이다. 권력과 자원의 차이에 따른 집단 간 교육기회와 교육결과의 차이를 중립적·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박미희, 2020). 교육양극화는 교육결과의 계층 간 격차가 양극단으로 이질성이 심화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교육기회와 교육결과 면에서 중간층이 감소하고 양극단으로 집락화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교육소외는 교육불평등이 상대성에 기초한 개념인 반면에, 교육기회 확보의 절대성에 기초한 개념이다. 학력격차는 교육격차의 미시적 관점으로 학습자의 교육결과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교육불평등, 교육격차, 교육양극화 등이 교육기회와 교육결과 모두를 포함하는데 비해, 학력격차는 교육결과에 치중한 개념이다. 학업성취도 격차와 유사하다(정송·안영은, 2021).

대체로 교육불평등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

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불평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교육불평등은 이념적, 상징적 성격이 강한 용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실질적 측면과 이념적 측면, 가시적 측면과 비가시적 측면, 현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교육 분야의 제반 불평등 양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용어들 중에서 교육불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교육불평등은 구조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념지향성을 띠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문제는 기술적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탈(脫)가치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교육불평등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2) 교육불평등 유발요인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교육불평등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유발된다. 교육불평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열 및 가정의 분위기, 학생의 능력과 동기부여, 거주지역, 학교의 위치와 문화, 교사역할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주화가 필요한 바, 대체로 교육불평등 유발요인은 개인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학교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오늘날은 사회구조적 요인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요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조절요인으로서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적 요인은 타고난 지능, 학습능력, 성실성, 인내심, 성취동기 등과 같은 학생 개인의 측면을 중시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회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 교육불평등이 중시되고 있다(최성수·이수빈, 2018). 사회구조적 요인은 거주지역, 사회계층, 학교형태 등의 사회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차이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불평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에 따른 교육불평등에 주목하고 있다.²⁾ 그리고 이러한 연

구들은 주로 학업성취도로 대표되는 교육결과의 차이에 주목한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가정배경을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교육비 지출,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태도, 교육지원활동, 가정 내 문화자본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것이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박미희, 2020). 반면에 학교요인을 중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학교의 시설이나 재정, 교과과정, 수업방식,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교사의 적극성과 기대수준, 학교장 리더십 등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성취감 등의 심리적 요인을 자극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고형일 외, 2005).

그러나 실제에서는 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배열해 보면, 사회구조적 요인은 거시 맥락적 요인이 될 것이며, 개인적 요인은 미시적, 직접적 요인이 되며, 학교요인은 매개요인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기능의 약화는 이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구조적 요인이 교육불평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가정적 여건이 유리해도 학생 개인의 능력, 자질, 성취의욕이 부족하면 우수한 교육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과대 해석하는 것은 자칫 결정론적 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과 학교요인 간의 관계도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학교요인이 큰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 대체로 부유층밀집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중도탈락율이 낮고 학업성취도가 높다(Ronald, 2008). 따라서 교육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불평등을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때, 상기한 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각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사회구조적 요인은 교육환경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학교요인은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복합적이고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정책처방도 교육정책은 물론, 복지정책, 경

- 2) Coleman(2003)은 학생의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질 등 학교요인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를 반박하였으나, 분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도이며 연구결과를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예로서, Werkema(2004)는 부유한 지역 고등학교가 대학진학률이 훨씬 높음을 밝힘으로써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고등교육 접근성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제정책 등 관련 정책들이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상기한 세 요인들을 중심으로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찾았지만,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서는 국가의 교육목표,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교육비 지출규모, 교육행정체계의 효율성 등 다양한 정책적, 행정적 요인들도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의 적실성과 적기성,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연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불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유발요인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3) 교육불평등 관련 분석변수 및 지표

교육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 및 지표는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지만, 크게는 투입변수와 결과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입변수는 이를 다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이는 일종의 독립변수에 해당한다. 결과변수는 산출물로서의 교육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계량논문들에서는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교육결과의 지표로는 주로 학업성취도가 사용된다. 그리고 교육불평등의 정도 및 원인을 비교·분석하는 경우에 사회계층 간, 지역 간, 학교 간, 동일학교 내 학생들 간, 출생연도별 코호트 등 다양한 차원에서 행해진다(정송·안영은, 2021). 지역 간 비교는 학생의 거주지역과 학교 소재 지역에 따른 비교 모두 가능하다.

교육불평등 내지는 교육격차 등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분석변수 및 지표들이 개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류방란·김성식(2006)은 부모의 학습지원정도, 경제여건, 학교에서의 존중정도 인식, 교사의 열의를 영향요인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를 결과변수로 설정하였다. 박용범(2006)은 지니계수, 사회적 환경, 학교소재지, 인간관계, 학교형태, 교육제도를 영향요인으로 하여 결과변수인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신혜련(2006)은 변수를 개인차원과 학교차원으로 구분하여 투입변수로는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지원을, 과정변수로는 자아개념, 학습태도, 방과후 활동, 과외를, 결과변수로는 학업성취도와 학교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우연택(2009)은 변수를 교육자원, 교육여건, 교육결과로 나누었는데, 교육자원은 인구변

동, 학생 수 변화, 학교 수 변화, 학급별 학생 수 등을, 교육여건은 학교소재지, 학교규모,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교육결과는 상급학교 진학률, 학업중단 현황을 선정하였다. 조영재 외(2012)는 교육양극화 개념을 사용하면서 측정지표를 교육 기회, 교육여건, 교육결과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계층, 세대, 지역, 성별로 교육양극화 현상을 조사하였다. 풍가기(2020)는 도시화 수준, 경제발전 수준, 각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지출, 출생률, 주민수입수준 등을 변수로 도입하여 지역 간 교육불평등 차이를 고찰하였다.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변수를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교육환경과 관련한 변수로는 부모의 학습지원 정도, 부모의 경제여건, 사회자본, 학습지원 등을,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여건, 교사지원, 학교시설, 학교에서의 존중정도 인식 등을, 교육결과와 관련해서는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기회평등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문수연, 2016; 윤수인·이홍직, 2019).

2. 연구의 틀

본 연구는 체제론적이고 과정론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코로나19 팬데믹시기의 취약계층학생들의 교육불평등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교육불평등을 구성하는 변수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며, 본 연구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변수에 따라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교육환경의 개념범위가 모호한 점이 있으며, 교육불평등을 초래하는 데서 사회구조적 요인에 지나치게 치중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교육환경의 하위변수를 교육여건과 교육기회로 구분하고 있는데(이혜영 외, 2005), 이 역시 보다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교육환경은 취약계층학생의 교육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³⁾ 개별 가정을 단위로 부모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직업,

3)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에는 경제, 사회 등의 거시적 환경요인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범위를 한정하기가 어렵고 교육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분석한다. 교육환경은 사회전체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거시 환경적 맥락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초점을 둔다(Rachel, 2004; 김경근, 2005). 그리고 교육환경은 흔히 교육여건과 교육기회로 구분하는데, 교육여건은 상대적으로 구조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여기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즉, 부모의 사회적 지위(직업, 학력 등),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설정할 수 있다(윤수인·이홍직, 2019). 이러한 교육여건은 교육과정과 교육결과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교육기회는 교육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교육여건이 유사해도 부모의 가치관, 가정문화, 학생의 동기부여 등에 따라서 교육기회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여건이 교육기회를 제약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회 측정지표로는 부모의 교육가치관 및 열의, 부모의 교육지도 및 돌봄 능력, 사교육 비중, 가정 내 문화자본, 가족형태 및 분위기, 학생의 열의와 가치관, 학생의 학습역량 등을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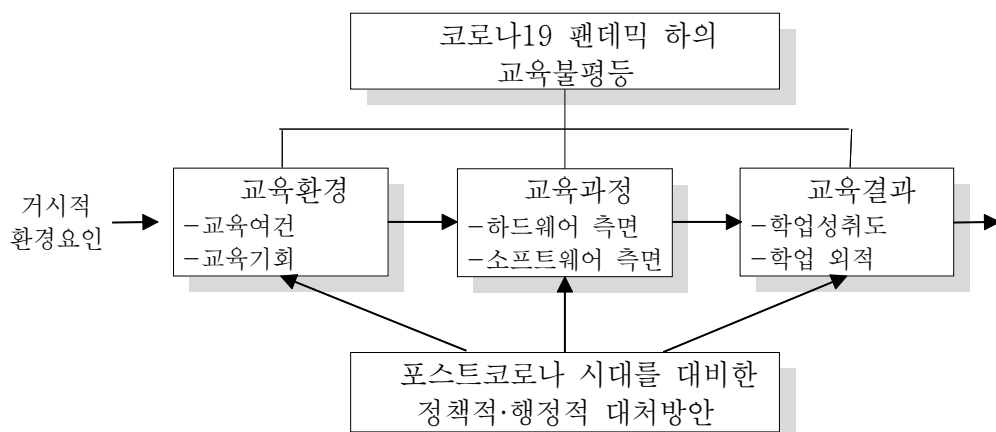
교육과정은 주로 학교요인과 관련된다(윤수인·이홍직, 2019).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육과정을 일정한 구분이 없이 분석을 행하지만, 교육과정도 물리적/하드웨어 측면, 질적/소프트웨어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자에는 학교의 소재지특성, 교육시설 및 기자재, 학교형태, 교사1인당 및 학급당 학생 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후자는 교과과정의 구성 및 운영, 교육방식, 학교 문화, 학교장 리더십, 교사요인(교수능력, 적극성 등), 교사와 학생 간 관계(상호존중, 관심과 지도 등)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반면에 학생 개인요인은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양면에서 일종의 매개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⁴⁾ 이는 학생 개인의 자질, 두뇌 등 선천적 요인과 학습의욕, 부모나 교사에 대한 존중, 성취의욕, 자발성 등의 후천적 요인이 혼재해 있다. 그리고 후천적 요인에는 부모의 관여와 지원, 교사의 교육방식이나 동기부여 등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 개인의 자질과 성취의욕 등을 경시하고 구조적 요인만을 강조하면 자칫 환경결정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출물에 해당하는 교육결과는 주로 교과성적이나 진학결과 등의

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환경요인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4) 학생 개인요인은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도 있으며, 교육과정을 학교 내 요인에 국한할 경우에는 교육환경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학업성취도를 통하여 측정하는데(김인희, 2010; 류방란·김성식, 2006), 이는 수월성 측면의 계량지표에 치중하는 것으로 결과 비교를 중시하는 현재의 교육풍토 하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인(全人)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성취감, 잠재력, 행복감, 창의성 등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할 논의의 틀이다.



<그림 1> 본 연구의 논의의 틀

III. 코로나19 팬데믹 하의 교육불평등 실태 분석

우리나라는 2020.1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이래, 외국인 입국제한조치 실기(失機)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2020년 중에는 확진자 수나 사망률 등에서 선방(善防)을 하였다. 그러나 2021년 들어서는 백신접종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하자 백신확보 부족에 대한 질책이 많았으며,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 등을 둘러싸고 백신기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접종률 올리기에 진력하였으며, 그 결과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2021.11월부터 위드(with)코로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21년 말 이후 돌파감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확진수가 급증함에 따라 다시 제재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오미크론은 이전

의 코로나 변이들에 비해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율은 낮아 점차 코로나19로 인한 공포로부터는 벗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3월 신학기부터는 학교의 자율결정에 따라 등교수업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4월부터는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하였다. 5월부터는 실외마스크 의무착용도 해제하였다. 이처럼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점차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신종변이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언제 종결될 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새로운 팬데믹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만연해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생활패턴, 근무형태 등 여러 면에서 이전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즉, 뉴노멀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은 교육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 학생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비대면 학습이 일상화되면서 부모의 돌봄 및 교육지원과 가정 내의 학습환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교육지원능력 부족, 온라인 교육기기의 부실, 열악한 교육공간 등 교육환경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사교육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하며, 지역사회시설도 폐쇄되어 이용이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교육여건과 교육기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교육여건은 학생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모의 경제력, 교육수준, 학습지원능력 등이 해당하며, 교육기회는 이러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학습 상의 불리함을 의미한다. 물론 교육기회 중에서 일정 부분은 학생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교육여건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많이 고용되었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상태가 매우 열악해졌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업종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음식업, 숙박업 등에서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박

경수, 2020).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이는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학생을 위한 보충교육시설, 지역사회 단위의 공공교육시설 등이 폐쇄됨에 따라 이들 학습여건이 불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면 취약계층아동의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교육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취약계층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대부분 현장근무자, 생산직, 비정규직, 음식업종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학습 환경 하에서, 부모의 차등적 재택근무 실태는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부모들은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 돌봄, 학습지원 등이 불리하다. 넷째, 비대면학습 상황에서 부모의 학습지원 역량이 더욱 중요해 졌으며, 이로 인해 부모의 교육수준, 교육열의 등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통계청, 2021). 그런데 부모의 학습지원능력, 가정 내 문화자본, 부모의 교육열의 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성이 높다. 대체로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따라서 학습지원 역량도 부족하다.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맞벌이가정이 많아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고 돌봄 여유가 부족하다. 이는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다섯째, 비대면학습 상황에서는 가정 내의 교육공간이나 온라인 교육기자재도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취약계층학생들이 불리하다. 온라인학습은 주의집중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취약계층은 쾌적한 학습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주거공간이 협소하면 자녀들이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통계청, 2021). 그리고 온라인학습에서는 컴퓨터 등 학습도구의 성능도 중요한데, 저소득 계층일수록 학습기기가 불량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등교수업의 축소로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사교육도 가격이 저렴한 대형 강의는 제한되기 때문에 소규모 고액과외를 받을 수 있는 부유층 학생들과의 사교육 차이는 더욱 커진다. 김화재의원실이 통계청의 가구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교육비는 872,000원, 하위 20%(소득 1분위)

가구는 108,000원으로 8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는데, 초졸가구 평균 52,000원. 중졸가구 353,000원, 고졸가구 416,000원. 대졸가구 704,000원이었다(동아일보 2022.1.25.일자). 전국 초중고 학생 74,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청·교육부(2022)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학교 급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사교육비가 증가하여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였다. 가구소득별 사교육지출 격차를 보면, 월평균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만원 미만 가구에 비해 약 5.1배였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학습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디지털기반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 역시 취약계층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디지털기반 학습상황에서는 몇 가지 기본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웹캠(Webcam) 등 디지털기기는 물론, 자기주도학습 능력, 부모의 학습지원, 기기사용 능력, 학습공간, IT기기 중독 방지 등이 필요하다(김경애 외, 2020).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기반 학습 환경은 사회계층 간에 차이가 큰데, 취약계층학생이 불리하다.

지금까지 교육환경 중에서 가정환경 즉, 부모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여건을 고찰해 보았다. 다음에는 이러한 교육여건의 제약을 받는 교육기회의 변화를 살펴본다. 교육기회는 거시적 환경맥락과 가정 내 교육여건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지만, 이로 인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교육여건은 부모의 의지와 교육가치관, 학생 본인의 의욕과 동기부여 등에 따라 교육기회 나아가서는 교육결과에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별적 관심, 상담, 보충학습 등도 불리한 교육여건을 극복하고 교육기회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정책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기회를 제고하는 데 개입한다. 이처럼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인적 요인과 교육정책이라는 정책적 요인이 개입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회와 관련한 명확한 개념규정과 실증조사는 없으며, 교육여건과 교육기회를 연결시키는 연구도 발견되지 않는다. 교사역할과 교육정책의 교육기회에 대한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도 발견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의 교육환경에 대한 전국단위 연구들 중에서 인적 요인과 관련되는 것들을 추출하여 고찰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는 교육여건 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교육열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통계청·교육부(2022)의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가구소득별 차이를 보면, 월평균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만원 미만 가구에 비해 5.1배 많다. 사교육 참여율도 차이가 크다(<표 1> 참조).

<표 1> 코로나19 기간 중의 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비교

		월평균소득 80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사교육비	2020년	52.3만원	10.3만원
	2021년	59.3만원	11.6만원
사교육참여율	2020년	80.8%	40.4%
	2021년	86.0%	39.4%

출처: 통계청·교육부(2022),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결과>, p.15에서 발췌함.

통계청(2021)의 사회동향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증가한 학생비율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증가폭이 훨씬 크다. 그리고 사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한 학생의 비율이 가정경제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차이가 초등학교 5.9%, 중학교 6.9%, 고등학교 9.9%로 학교 급이 높을수록 차이가 크다(<표 2> 참조).

<표 2>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늘어난 비율 (%)

	가정형편이 좋음	보통	나쁨
초등학교	28.8	23.7	22.9
중학교	32.9	27.4	26.0
고등학교	33.7	28.3	23.8

출처: 통계청(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pp.19-20에서 발췌 정리함.

물론 사교육비를 통해 부모의 교육철학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기간 중에 고소득층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절대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증가폭이나 비율도 고소득층이 높다(통계청·교육부, 2022).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자녀교육 열의가 높고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오히려 고소득층일수록 더욱 강하다. 따라서 부모의 열의나 교육가치관이 교육여건과 교육기회의 중간에서 교육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경제력이 더욱 낮아졌기 때문에 의욕은 있지만, 사교육을 추가할 형편이 되지 못하며, 이는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학생 요인의 측면에서 보면, 학생의 학습열의, 주의집중력, 동기부여 등이 교육여건과 교육기회의 중간에서 매개요인이 될 수 있는데, 통계청(2021)의 <한국사회동향 2021>에 따르면, 초중고 모두 저소득가정 학생일수록 “온라인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그대로 넘어간 학생의 비율”이 높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가정형편이 하(下)인 경우 25.3%로 나타나 중(中) 9.8%, 상(上) 8.5%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따라서 오히려 취약계층학생일수록 수업에 임하는 데서 적극성이 낮다. 물론 여기에는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잘 이해를 하지 못해 질문을 적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디지털기기를 학습 외에 사용하는 초등학생 비율”을 보면, 가정형편이 하인 경우 62.8%, 중 53.0%, 상 43.8%로 이 역시 취약계층학생일수록 디지털기기를 오락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한국일보 2021.12.10.일자). 그리고 “디지털기기의 성능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은 비율”은 가정형편이 하인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28.9%, 중학교 33.0%, 고등학교 27.1%로 나타나 부유한 가정의 학생보다 모두 2배 이상 높다(통계청, 2021). 이처럼 학생의 학습의지, 태도, 동기부여 등이 교육여건과 교육기회를 매개하여 교육여건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어야 교육불평등이 줄어드는데, 이 역시 오히려 취약계층학생들이 불리하다.

이처럼 비대면학습은 교육환경의 면에서 학생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취약계층학생일수록 교육여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상쇄해 줄 요소인 부

모의 의지, 교육에 부여하는 가치 등이 고소득층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습지원 및 돌봄 역량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학생 개인으로서도 학습의지, 집중력, 동기부여 등이 고소득층학생들이 오히려 높다. 그렇다고 비대면학습 상황에서 교사들이 별도의 세밀한 관심과 지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교육여건의 불리함에서 오는 영향을 중화해 주어야 할 부모, 학생, 교사의 인적 요인 면에서도 취약계층학생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저학년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2.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변화

코로나19는 교육환경은 물론, 온라인교육, 온·오프라인 혼합교육(blended learning), 학교 및 교사의 역할, 학교행정의 디지털화 등 교육과정 전반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들 중의 일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새롭게 진화하여 존속될 가능성이 크다. 장점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변해야 할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진 것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는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 교육방식, 교육콘텐츠, 교육플랫폼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의 변화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비대면학습의 일상화이다. 2020.1월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개학을 늦추어 2020.4월부터 고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개학을 시행하고 이후 코로나19의 진척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등교수업, 부분 등교수업, 온라인수업을 반복하였다. 2022년에도 변종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심각한 학업결손을 이유로 3월부터는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방식을 결정하게 하였으며,⁵⁾ 4월 들어 대부분 등교수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향후추이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후에도 유사한 감염병이 출몰할 수 있어 비대면학습은 재현될 개연성이 크다. 계보경 외(2020b)가 전국 초중고 교사, 학생, 학부모 함께 857,389명을 대상으로 실

5)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2020.3월부터 2021.10월까지 총 88주 중에서 68주(77.3%) 동안에 학교 전면 또는 부분 폐쇄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긴 것이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62주, 일본 11주, 프랑스 12주 등이었다(통계청, 2021).

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필요시에 원격수업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교사들은 매우 그렇다 17.6%, 그렇다 36.8%, 보통이다 21.7%, 그렇지 않다 14.8%, 전혀 그렇지 않다 9.1%%로 나타나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반면에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반대 43.5%, 찬성 43.4%, 모르겠다 13.1%로 찬반이 비슷하였으며, 중고생 학부모는 반대 48.6%, 찬성 39.0%, 모르겠다 12.4%로 반대의견이 높다. 이는 학업성적 부담이 큰 고학년일수록 비대면학습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부모의 자녀 학습지원도 벅차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비대면학습은 통학시간, 시설유지비 등 중간단계 비용 절감, 학습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감소, 수업선택권을 증대 등의 장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인교육을 저해한다. 학교교육에서는 인성, 사회적 역할, 또래행동 등을 습득해야 하는 데, 이는 어울리면서 체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학습에서는 주요 교과목 외는 등한시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예체능 교과목이 문제가 된다. 또한 학령기에 각종 학예활동이나 교외활동이 필요한데, 비대면학습으로는 불가능하다. 실험실습과 문제 학생에 대한 상담도 어렵다. 그리고 비대면학습이 일상화되면 학부모의 교육지원, 사교육, 돌봄 부담도 크게 증가하며, 이는 학부모의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민희, 2021).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의 난제로 자녀의 학습습관 형성 및 집중도 유지를 가장 많이 들며, 다음으로는 학업수준과 평가에 대한 불안을 들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걱정이 많다. 교사와의 소통이 어려운 점을 문제로 드는 비율도 높다. 따라서 비대면학습 운영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비대면학습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비대면학습은 등교수업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다. 특히, 취약계층학생들에게 더욱 불리하여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⁶⁾ 구체적으로, 비대면학습에

6)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등교일수를 기준으로 보면, 등교일수가 줄어든 학교일수록 중위권 성적이 줄고 상하위권이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보면 평균 학업성취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등교수업을 적게 한 학교에서는 국영수 모두 상하위권 학생비율이 늘고 중위권 학생비율이 줄어들었다(청년 의사 2022.4.2.일자).

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부모의 교육지원 역량, 사교육 접근성 등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환경이 된다. 디지털 학습기기, 쾌적한 학습공간 등도 중요한 교육환경이다. 교육당국에서는 비대면학습을 수업성격과 학생들의 학습속도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있지만(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2020), 어느 형태이든 취약계층학생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 비대면학습 상황에서 학교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유사한 수준의 교육환경을 구비해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비대면학습에서는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상담기능 등에서 제약이 많다. 취약계층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긴급 돌봄, 학습보조 등도 한계가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학습의 증가는 여러 면에서 취약계층학생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며, 이는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비대면학습 시에는 학교나 교사들이 교육약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모의 관심과 온라인교육 지원역량이 낮은 가정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은 교육방식 면에서 디지털기반의 스마트교육 방식으로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등교수업으로 전환하였지만, 유사한 위기상황이 오면 비대면학습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그리고 비대면학습은 장점도 적지 않기 때문에 등교수업과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⁷⁾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학생이나 보충수업이 필요한 학습부진학생 등에게는 비대면학습을 보충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년은 처음 시행되는 비대면학습이기 때문에 초보적 형태와 학습도구를 사용하는 수준이었다. 통계청(2021) 조사에 따르면, 원격수업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주로 활용하였으나(초등학생 47.8%, 중학생 62.1%, 고등학생 59.6%), 2020년 2학기부터는 실시간 화상수업의 비중이 초등학생 57.5%, 중학생 65.8%, 고등학생 48.9%로 커졌다. 앞으로는 에듀테크의 발달과 더불어 등교수업이든 비대면학습이든 우리 교육은 스마트교육의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으며, 이제 교육불평등도 스마트교육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체감형 교육, 게임과 교육의 결합, AI

7) 비대면학습 유형별 효과에 대해 교사들은 6점 기준으로 강의+활동형 콘텐츠 활용수업 4.21점, 강의형 콘텐츠 활용 수업 3.99점, 실시간 쌍방향 수업 3.95점, 과제수행중심 수업 3.78점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계보경 외, 2020a).

보조교사 활용, 빅데이터 활용 등이 교육과정에 도입됨에 따라 전통적 교육방식이나 교육기자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임성규 외, 2020). 이러한 스마트 교육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학교와 교실에 스마트수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학습기기를 구비하고 교사와 학생의 에듀테크 사용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사중심의 일방향 소통체계를 혁신하고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교실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홈러닝(home learning)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고 화상으로 교사와 대화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집중도를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드백을 행한다(박남기, 2021). 그러나 스마트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미래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모든 학생들에게 일시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학년, 교육능력 등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형태의 교육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교사는 여전히 학교교육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역할내용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에 따라서 비대면학습이나 혼합학습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으며, 교실수업에서도 기존의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교수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 방향을 보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각종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자기주도 학습은 목표설정, 과정설계, 결과평가 등을 학생이 주체가 되어 행하고, 교사는 이러한 전체과정을 지원하고 코칭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취약계층학생과 돌봄이 필요한 교육약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대면수업에서는 기존의 교육방식도 계속하지만, 교사 한사람이 수업 전반을 이끄는 방식보다는 참여교육을 중심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교육콘텐츠와 다양한 에듀테크 기기들을 활용한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도 지식전달 못지않게 학습동기 유발과 개별상담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스마트교육에 적합한 교수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이지은, 2021). 특히, 비대면학습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과내용과 교육방식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학습은 교육과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관여를 증대시켰다. 부모의 돌봄 기능이 중요해지고, 교육지원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교육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물론, 부모들의 교육 관여는 등교 수업에서도 많았지만, 비대면학습 상황에서는 돌봄, 교육지원, 기기점검 등 여러 면에서 훨씬 증가하였으며,⁸⁾ 이는 큰 부담이 됨은 물론, 자녀들의 돌봄이나 학습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모들이나 자녀교육지원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들은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비대면학습 상황에서 ‘자녀의 원격수업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정도가 더욱 크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부모가 함께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계보경 외(2020b)의 조사에서 “원격수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생은 부모 77.3%, 선생님 7.1%, 형제자매 4.5%, 인터넷 검색 3.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으로 크다. 수업 외에 식사 제공, 돌봄 등 다른 것들도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의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된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비대면학습에 관여하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부담이 있는데, 비대면학습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학교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약 60%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응답도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는 19.1%,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31.8%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학습 시에 실시간으로 학부모의 질의에 답변과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와 학습지원 능력이 부족한 학부모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책을 강

– 19 –

구함으로써 비대면학습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3.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과의 변화

여러 조사들이 코로나19 기간에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하는 교육결과 면에서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단절, 학습효율성 저하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교육지원과 돌봄 기능이 취약한 취약계층학생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2020)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학습격차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96.0%가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이후 중학생의 수학 학력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고 발표하였으며, 다른 조사에서도 2020년 말 중3과 고2의 3%를 표집해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국·영·수 과목 전체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동아일보 2022.1.3.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2020)는 서울소재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등급비율 변화량, 학업성취등급분포의 지니계수, 중위권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여, 코로나19 이후의 개별 학교 내에서의 학력격차를 조사하였는데, 학업성취등급분포의 지니계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위권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즉,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중위권은 감소하고 최상위 A등급과 최하위 E등급이 증가하여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여기에는 비대면학습 상황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의 차이, 부모지원의 차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과목별로는 국어의 학력격차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수학은 학력격차가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 과목별로 학업성취등급분포 지니계수를 보면, 영어, 수학, 국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영어 과목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학력격차가 컸던 교과목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지니계수 변화폭은 수학과목에서 가장 크게 나고 있다. 수학은 고난도 문제는 교사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학습 상황에서 취약계층학생들의 교육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 특히, 수학은 위계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격차가 발생하면 좁히기가 어렵다.

장득구의원실은 2021년 9월,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의 교원, 학생, 학부모 총 22,54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교육결과 면의 교육불평등 지표에 해당하는 교육격차 심화와 기초학습부진 학생 증가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한 전체응답을 보면 71.1%(매우 그렇다 26.7%, 그렇다 44.4%)가 교육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증가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72.8%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3> 참조). 특히, 학부모들이 교육격차 심화, 기초학습부진학생 증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 그 다음이 교사집단으로 이들 역시 응답자의 70% 전후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불평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학생들은 아직 교육성취도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아무래도 밖에서 바라보는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특기할 점은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지도가 교원 60.4%, 학부모 20.3%, 학생 17.9%로 나타나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사들까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다. 이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남발,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성 부족 등 여러 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계보경 외(2020b)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인식과 학습격차 심화이유를 교사들에게 질문하였는데, 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격차가 매우 커졌다 32.7%, 커졌다 46.3%, 변화 없다 17.6%, 줄어들었다 3.2%, 매우 줄어들었다 0.2%로 응답자의 79.0%가 비대면학습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실제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학습격차의 심화 이유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차이 64.9%, 학부모의 학습보조 13.9%,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의 한계 11.3%, 학생의 사교육 수강여부 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차이가 학습격차를 가져오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표 3>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 (%)

	전체	교원	학부모	학생
교육격차 심화	71.1	72.3	75.8	48.8
기초학습부진 학생 증가	72.8	69.3	78.3	50.3
돌봄격차 심화	58.7	61.1	64.1	33.0
사교육 의존 심화	70.7	54.4	76.8	51.4
학생스트레스 증가	56.2	55.5	59.1	43.1
부모양육부담 증가	73.6	76.7	79.5	44.5
끼니 해결 못하는 학생 증가	47.5	35.5	52.8	30.4
원격수업방식 개선	42.1	79.1	38.8	36.4
전면등교수업 정책만족도	55.7	56.6	60.5	33.4
학력격차해소/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23.5	60.4	20.3	17.9

* 질문에 대해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비율임.

출처: 강득구의원실(2021), pp.8-21에서 발췌 정리함.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부모의 학습지원과 돌봄 역량이 부족한 취약계층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World Bank(2020)는 코로나19 이후의 학생들의 학습수준 분포를 예측하고 있는데, 시나리오1은 모든 학생의 학습수준이 동일하게 하락하여 전체평균 학습수준이 저하되는 것이며(low average score), 시나리오2는 상위권학생의 학습수준은 더 높아지고 하위권학생은 더 낮아져 차이가 커지는 것이다(higher standard deviation). 시나리오3은 대량의 중퇴자가 발생하여 하위권학생 다수가 제도권교육으로부터 이탈하고 전반적 학습수준 차이도 커지는 것이다(sharp increase of dropouts).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학생들의 평균 학습수준이 떨어지는데,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3은 불평등한 학습손실로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가 더 커지는 경우이다(한효정, 2021).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의 조사들을 보면, 대체로 시나리오2의 양상에 가깝기 때문에 취약계층학생들의 교육불평등 심화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IV.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불평등에 대비한 정책적·행정적 대처방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측불허의 위기상황에서의 교육불평등에 대한 대처는 지금까지와는 틀을 달리하는 혁신적인 재구조화(restructuring)가 필요하다. 2년 동안의 비대면학습은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변화의 토대 위에서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불평등 대처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혁신적 재구조화를 통하여 교육방식과 교육내용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해야 한다. 교육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새롭게 인식하며, 교사, 학부모,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취약계층학생의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행정적 처방을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언한다.

1. 교육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처

본 연구는 교육환경을 교육여건과 교육기회로 구분하고, 교육여건은 학생이 통제하기 어려운 가정적 요인, 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교육기회는 이러한 교육여건의 영향을 받는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보았다. 그리고 교육여건은 구조적, 하드웨어적 특성이 강하며, 교육기회는 소프트웨어적 특성이 강하다. 교육환경 특히, 교육여건의 차이가 교육불평등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임은 예전부터 주장되던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할수록 자녀의 교육기회도 불리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학습 상황에서 가정배경의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층 간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온라인 학습도구, 학습 공간, 보호자의 학습지원, 교사와의 상호작용, 사교육 등에서 훨씬 불리하다. 등교수업에서는 학교요인이 이를 완화해 주었으나, 비대면학습에서는 이것이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비대면학습일수록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은 이러한 부모역할이 취약하다. 그동안 급식비 지원, 교육비 감면 등의 보상적 차원의 교육복지정책이 있었으나, 비대면학습 상황에서

는 보다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환경 측면의 교육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환경을 거시 환경적 맥락과의 연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복지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복지정책, 경제정책, 고용정책 등과의 맥락 속에서 행해야 한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등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에서는 공공부조의 교육급여 지원과 연계해야 한다. 고용정책에서는 취약계층학생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알선 등을 행하며, 교육결과도 학업성취도만이 아니라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불평등의 해소는 임금정책, 인사정책 등과도 연관되어 있다. 현재 학력별 임금격차와 승진격차가 크다. 따라서 모두가 학력성취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다.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는 우열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데, 취약계층학생은 여러 면에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정책, 조세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들이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교육불평등은 다양한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정책적 대처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교육불평등과 관련되는지, 이들 간에 중복, 모순은 없는지, 어떠한 경로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교육여건과 교육기회 간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대부분 교육여건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이것만으로 교육환경을 바꾸기는 어렵다. 교육여건은 교육기회를 제약하지만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그 중간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에 부여하는 가치, 자녀와의 관계형성, 학습지도능력 등은 물론, 학생 개인의 의욕, 동기부여, 집중력 등에 의해서 조절된다. 지금까지 정책이나 연구가 지나치게 결정론적 관점에 입각해 있어 자칫 부모와 학생을 수동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셋째, 교육에 대한 학생의 흥미유발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은 비대면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대여, 디지털 돌봄,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등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럼에도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좋은 스마트기기를 공급해도 학생들이 이를 오락기기로 사용하면 효과

가 없다. 몇 가지 동기부여 방안을 제시하면, 난관 극복자 및 사회저명인사의 주기적 특강개최, 교사와 상담전문가의 내실 있는 학습 진단과 애로상담, 인기강의의 온라인 수강을 통한 학습관심 유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미국의 AP제도처럼 미리 인근대학의 교양강의나 기초전공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어느 대학에 진학하든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를 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이제 공교육은 교실에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넷째, 학부모의 자녀교육 방법, 자녀와의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한다. 학생의 교육기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는 부모의 교육열, 지원노력, 자녀와의 관계, 가족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부모 상담, 학부모 대상의 특강개최, 교육정보 제공 등의 지원책을 통하여 학부모의 교육가치관, 자녀와의 관계, 학습지원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맞벌이부부가 많은 저소득층이 불리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관련 특강을 개최한다든지 휴일반을 개설한다든지 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섯째, 가정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간에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에는 중복업무가 많음에도 협력과 소통이 부실하다. 지방경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교폭력이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청, 일선경찰서, 학교현장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중복과 낭비,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김민희(2021)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 교육당국, 주민단체 등이 취약계층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였지만, 수요파악 부실, 서비스 중복, 활동의 파편화 등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선 지역사회 단위에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들 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돌봄기능은 지자체와 주민단체 등에서 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학습지원기능을 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2. 교육과정의 혁신

교육과정은 교육방식, 교사 역할, 교사-학생 간 관계형성, 교과과정, 수업방식, 추가학습 등 여러 면에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 교육환경이 교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에서 중요한 매개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혁신이 없이는 교육불평등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교육과정의 혁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교사의 역할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사는 강의와 학생지도를 행하고 학생들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사와 학생 간 관계, 교사 역할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는 코치로서, 진단가로서, 학습매니저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코치로서의 교사는 학생들이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보충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진단가로서의 교사는 개개 학생들의 수준과 수요를 진단하고 이에 맞추어 처방을 하는 것이다. 매니저로서의 교사는 학생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학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변화하려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며, 지도교사제, 복수교사제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수업방식의 변화와 교과내용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수업방식 면에서 교실 내 교육은 교사가 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교실 내에서 공교육과 동영상 강의 등 사교육을 접목하는 방식을 통해 공교육의 부실함을 학교 내에서 해결한다. 그리고 혼합학습을 도입하되, 비대면학습은 주로 보충수업 용도로 활용한다. 이때도 교사가 반드시 비대면학습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부강사 등에게 맡길 수 있다. 교과편성 측면에서 현재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사회, 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교과목들이 편성되어 있다. 이는 공교육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술혁신이 세상을 선도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과목들 외에 기초기술교육, 논술교육 등의 비중을 높이고,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은 외부특강이나 현장수업 등을 강화해야 한다. 중고교 교과과정에서는 진로선택, 직업교육 등을 강화한다.

셋째, 학교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교실환경을 쾌적하고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한다. 교실분위기, 디자인, 수업기자재, 책상배치 등을 신세대의 취향에

맞는 감성적 교실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 실험기자재, 실습도구 등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습교육, 기술교육을 대학에서 하는 등 학-학(學學)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고성능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그리고 미래교육은 온라인으로 사전학습을 하여 오프라인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과정이 구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방식은 학습동기가 강한 학생과 약한 학생들 간에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습동기가 약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정에서 담당기관, 교육정책, 프로그램들 간의 통합연계성을 강화한다. 현재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문제는 정책, 프로그램, 집행기관의 파편화로 인해 중복과 낭비가 심하고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교사와 행정인력들이 과다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교육불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합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순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행정기관들 간에 통합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교육당국, 지자체, 고용센터, 보건소, 경찰서, 일선학교 등 행정기관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조정을 해야 한다. 보건소는 교육불평등이 건강불평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경찰서는 학교폭력과 연계하기 위해,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음에 교육불평등 프로그램들 간의 통합연계성도 중요하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교육불평등, 학교폭력, 심리상담, 진로지도, 보건 및 양호, 또래집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분절되어 있어 대상자들이 중복되고 교사들도 시간소모가 크다. 따라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통합하고, 단계적으로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교육불평등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을 연계한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결과 지표로 보면 교육불평등과 직업교육은 연계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불평등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과도 연계가 필요하다. 가령, 기초생활보장 중에서 교육급여를 교육성

취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주면 취약계층학생의 교육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정에서 학교와 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민간기업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취약계층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앞으로 학교, 교육당국, 에듀테크 기업이 협력하여 유용한 교육기기나 프로그램들을 보급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학생의 학습지원과 돌봄을 강화하는 데서 에듀테크 산업이 기여할 영역이 많다. 그리고 주민단체, 전·현직교사, 민간상담인력 등과 연계하여 학습지원, 돌봄지원, 개별상담 등을 행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습 및 생활지도 방문도우미, 온라인 학습방 운영 등을 통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며, 중고등학생은 대학생 교육지도, 퇴직교사 교육멘토링 등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하여 지역단위에서 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취약계층학생의 교육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여섯째, 교육과정에서 공교육과 사교육 간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초중등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여기에 학교 내 추가학습과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지원이 보완하고 있다. 사교육은 대체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고학년일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 이는 공교육만으로는 학습수준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사교육시장의 발달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근절할 수 없다면,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학생들에게는 대학생 과외 지원이나 수강바우처 제공 등 다른 형태의 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교육기관의 교육플랫폼과 콘텐츠를 활용하고, 학생들의 사교육기관에서의 학업진도 등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사교육보다는 민간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및 학교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행정의 레드테이프(red tape)를 감축해야 한다.

교육행정은 절차가 까다롭고 문서작성이 많아 적시성을 상실함은 물론, 일선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교육과 학생지도라는 본질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학생이 더욱 크다. 따라서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불요불급한 문서행정은 혁신하고 교사들이 본질적 임무에 치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행정규제가 과다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육행정규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켜 관심이 많이 필요한 취약계층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규제영향평가, 규제일몰제도 등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교육행정규제를 줄여야 한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설정하고,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 하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제 교육불평등도 교육행정이 주도하여 해결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지원하고 섬기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행정과정에서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책은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이 중요한데, 교육현장의 교육불평등에 대해 가장 정통한 사람은 일선교사들이다. 따라서 교육불평등 관련 정책, 프로그램, 지침 등을 만드는 데서도 일선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행정 및 학교행정의 칸막이 현상을 제거해야 한다. 협력이 잘 되어야 교육행정과 프로그램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부과를 일원화해야 한다. 업무배분을 명확하게 하여 낭비적인 일처리를 방지해야 한다.

3. 교육결과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결과는 교육불평등의 최종 상태이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육불평등을 교육결과 그 중에서도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계량화의 필요성 면에서 수긍할 수 있으며,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학업성취도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교육의 교육결과는 학업성취도만으로 측정되면 곤란하다. 교육불평등의 지표가 학업성취도이면, 부실한 공교육하에서 이를 정책적, 재정적 지원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교육의 가치, 학생의 평가기준, 나아가서는 교육결과의 평가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우선, 교육불평등, 교육결과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를 판단하는 변수와 지표도 개발해야 한다. 다양화해야 한다. 기존의 학업성취도는 물론,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성취의욕, 창의성 발휘, 잠재력, 심리적 행복감, 도덕심 및 준법 정신 등 공교육이 지향하는 전인교육에 부합하는 복합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은 질적 성격이 강하여 평가와 비교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만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공교육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서는 학교 급별로 상이한 변수와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 가령, 진학결과 지표는 고등학교에는 중요하지만, 초등학교에는 의미가 없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윤리성, 창의성, 성취의욕 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평가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현재 학생평가는 주로 학업성취결과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후광효과(halo effect)로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은 다른 영역도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은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되고, 이는 학생의 자신감과 자존감 형성을 저해한다. 그리고 학생평가에서 현재 드러난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물론, 현재의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 이는 학생들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좋지 않다. 따라서 학생평가를 발현된 교과성적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발달지표를 토대로 개선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교과평가도 인과관계를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와 상담을 통해 피드백을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력중심주의, 연고주의 등 사회문화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양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고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학력중심의 연고관계가 강하게 작동한다. 취약계층학생의 학업성취가 낮고 이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현상도 근본적으로는 학력중심의 연고주의 문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일은 일생을 통해 획득적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고 또한 이를 존중하는 성취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처럼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교육불평등을 평가하는 풍토는 그 자체가 취약계층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점에서 교육불평등 해소보다는 교육형평성 제고라는 긍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화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며 장기적 관점에서 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

교육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교육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성과가 미미하고 불요불급한 것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수정과 보완, 성과평가를 통한 상벌체계의 작동이 부실하다. 아무리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을 도입해도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없다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인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은 주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기간이 경과하면 의무 종료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상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 하의 비대면학습으로 인한 취약계층학생의 교육불평등 실태와 대처방안을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순으로 논의하였다. 취약계층학생은 평소에도 불리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학습 상황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 결과,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2022년 신학기부터 등교수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학습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취약계층학생의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면적인 재설계 내지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취약계층학생의 교육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을 결론에 갈음하여 제언한다.

첫째,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목표와 수단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수월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며, 취약계층학생의 학업성취와 잠재력 개발을 어떻게 동시에 복돋울 것이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

의적 인재 양성과 교육불평등 해소를 어떻게 접목할 것이며, 교육재정은 어떻게 확보하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지, 교육당국과 일선학교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할지 등 보다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환경 측면에서, 우선 교육환경의 불평등을 거시적 환경맥락과의 연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교육환경은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조세정책, 사회복지정책, 고용정책, 임금정책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행정측면에서도 교육당국만으로는 교육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부부처,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과 조정이 중요하다. 다음에 교육환경을 교육여건과 교육기회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전자가 후자를 제약하는 정도를 줄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을 혁신해야 한다. 수업방식을 디지털화하고 교육내용을 과학기술의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며, 교육시설도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정서순화를 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첨단화하고, 이를 운영하는 교사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코치 및 멘토(mentor)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 학교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반자관계가 되어야 한다. 교육불평등은 공교육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교육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다양한 공사(公私) 행위자들이 함께 문제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불평등 관련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들 간의 통합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중복과 파편화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성이 심하다. 특히, 일선 교육현장인 교육지원청, 경찰서, 시군구 지자체 간에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교육결과 측면에서, 무엇보다 교육불평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학업성취는 물론 도덕성, 창의성, 사회성 등을 동시에 함양해야 하는 학교교육에서 교육불평등을 학업성취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행정편의적인 것은 아닌지를 숙고해야 한다. 교육결과 측면의 교육불평등을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질적, 양적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다음에는 교육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즉, 교육결과는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의 성격이 강하지만, 교육결과의 실태와 원인을 잘 파악함으로써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에 대한 처방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행정 전반에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환경, 교육과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수정·보완한다. 그리고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효과성, 만족도 등의 성과를 평가하여 환류를 해야 한다. 성과가 미진하거나 불요불급한 것들은 통폐합한다.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많은 조사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고, 교육당국도 이를 알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도 많다. 그러나 정책, 제도, 프로그램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화중지병(畫中之餅)에 불과하다. 적시성, 효과성, 반응성이 있는 실천과 처방이 필요하다. 위기는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 전반에서 근본을 재설계, 재구조화하는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득구의원실(2021), <코로나19 2년째 교육격차 심화, 데이터가 말한다.>, 2021년도 국정감사자료집.
- 계보경 외(2020a), <COVID 19 확산 예방조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중고 원격학습 현황조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계보경 외(2020b), <COVID 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고형일 외(2005),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22), <2021년 사교육비조사결과 주요특징 및 대응방안>, 2022.3.11.일 보도자료.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애 외(2020), <코로나19 확산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민희(2021), 코로나19 시기의 취약계층 학생지원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경제와 정책연구> 11(2): 153-175.
- 김인희(2010), 교육소외와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 과제, <한국사회정책> 17(1): 129-175.
- 류방란·김성식(2006), <교육격차와 학교교육의 기능>, 한국교육개발원.
- 문수연(2016), 교육불평등 변화양상 분석: 중간계급 및 코호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5): 141-171.
- 박경수(2020), <언택트 비즈니스>, 포르체.
- 박남기(2021), 포스트코로나시대 교육 새 패러다임 탐색, <한국초등교육> 32(2): 17-32.
- 박미희(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 박용범(2006), <수학 학업성취에서 불평등의 요인 분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2020),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신혜련(2006), <평준화지역 중학교의 교육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연택(2009), <교육격차 분석 및 교육복지 향상방안 연구: 강원도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수인·이홍직(2019), 한국의 교육불평등에 관한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4(1): 275-283.

이지은(2021), 코로나19에 따른 중학교교육 현장의 변화분석: 대구시교사 면담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0(2): 37-60.

이혜영 외(2005),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임승규 외(2020), <포스트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빛비즈.

정송안영은(2021), 코로나19전후 학교 내 학력격차실태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1(2): 53-74.

조영재·고현민·한석근(2012), 교육양극화 개념과 측정에 관한 논의, <교육종합연구> 10(2): 25-44.

최성수·이수빈(2018), 한국에서 교육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부모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 <한국사회학> 52(4): 77-113.

통계청·교육부(2022),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통계청(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풍가기(2020), 중국 지역 간 교육격차 결정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경제신문(2020),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한국경제신문사

한효정(2021), 원격수업과 학습격차관련 통계, <월간 교육정책포럼> 2021.2월호. 한국교육개발원.

Brookover, W. B. et al. (1979). *School Social Systems and Student Achievement: School Can Make a Difference*. New York: Bergin.

- Coleman, J. S.(2003). Disparities Within: Unequal Spending and Achievement in an Urban School District. *Sociology of Education*, 76(1): 18–19.
- Kline, P. and C. Walters (2016). Evaluating Public Programs with Close Substitutes: The Case of Head Star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4): 1795–1848.
- Phadermrod, B., R. Crowder and G. Wills (2019),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Based SWO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4: 194–203.
- Rachel D. W. (2004). *Access, Choice, and Opportunity: Three Studies of Educational Inequality*.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Ronald L. L. (2008). *Educational Inequality in an Affluent Setting: An Exploration of Resources and Opportun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Werkema, R. D. (2004). *Access, Choice, and Opportunity: Three Studies of Educational Inequ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2020), *We should avoid flattening the curve in education: Possible scenarios for learning loss during the school lockdown*.

Abstract

Policy and Administrative Responses to the Educational Inequality under the COVID-19 Pandemic

Soon-Yang K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inequality of vulnerable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suggest policy and administrative responses to the deterioration of educational inequality.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debated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concept, causes, and measuring indicators of educational inequality, and then established the framework to undertake the analysis. The next chapter delved into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ional process, and educational outcomes of vulnerable children under the COVID 19 Pandemic,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ationwide data produced by government department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nline learning and community closure during the period of the COVID Pandemic have worked against vulnerable children, and thus, educational inequality has been deepened significantly. This article examined the causes and results of deteriorated educational inequality from various angles, and then suggested policy measures to tackle educational inequality,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 19.

Key words: educational inequality, COVID 19 Pandemic,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ional process, educational outcomes

* Professor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